

군산시청 직원들, 경제 활성화 앞장

시, '전직원 BUY군산 마일리지 제도' 운영... 연말에 점수 높은 3개 부서 선정 시상

최근 내수 부진과 함께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청 직원들이 앞장서고 나섰다.

군산시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BUY군산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직원 BUY군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 고장 상품 애용, 우수 리상품권 구매 확대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의 일환으로 특히 대규모 점포 등으로 상대적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전통시장과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판매되는 군산팍, 로컬푸드 매장 이용으로 한정된다.

군산시는 부서별 운누리상품권 구입 및 관내 전통시장, 군산팍,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총 사용금액을 부서 현원으로 나누어 평균 이용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연말에 점수가 높은 3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은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AI, 구제역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내 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갑곤 기자

군산시, 어린이용 세금홍보 문화책 '지방세 여행' 발간

시단위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가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을 발간했다.

군산시는 26일 관내 56개 초등학교에 배포된 어린이용 세금홍보 문화책을 군산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세금홍보 문화책은 초등학생이 지방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어디에 쓰이며 어떻게 납부하는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만화로 그려냈다.

시는 세금홍보 문화책을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비치해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교육교재로 활용이 가능한 PDF파일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군산=김갑곤 기자

익산시, 스마트 팜 현장포럼 개최

삼기면 (주)서우MS 스마트 팜에서

익산시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 현장인 삼기면 (주)서우MS에서 실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 팜의 육성·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ICT 스마트팜 현장포럼은 익산시 22개 미래농정 혁신과제에 포함된 열린 미래농정 현장포럼 및 ICT 융복합기술 설명회 등을 스마트팜으로 버섯재배를 컨트롤하는 스마트 팜 현장이 견학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의 ICT



익산시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버섯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 현장인 삼기면 (주)서우MS에서 실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 팜의 육성·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노력과 작물 선정의 주관점, 농업과 ICT 접목 효과,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ICT 스마트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장에는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과 관심 있는 귀농귀촌자와 청년농업인, 농산물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ICT 스마트 팜에 대한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익산시 스마트 팜은 시설원예 전체 면적 649.2ha 중 13개 농가 22ha가 조성(3.3%)되어 있어 전국 1% 보다 높게 보급되어 있다. 시는 ICT 융복합 기술을 통한 스마트팜 보급·확산으로 미래 농업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지역업체·지역자재 사용 협약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26일 전국체전대비 종합운동장개선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생산물자재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업체인 흥한건설(주) 대표 박호섭 등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 대표가 참석했다.

익산시의 흥한건설(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유선선정, 지역생산물자재유선사용,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즉시 지급, 시의 적극적 행정적지원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팸투어

시, 20여명 초청... 고군산군도 여행·군산시간여행마을·경암동 철길마을 둘러봐

군산시가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의 시범 출사를 앞두고 인소문 마케팅에 나섰다.

시는 내달 6일부터 매주 주말 운행하는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상품 출사를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수도권 지역 여행사 대표·기자 및 파워블로거 등 20여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1일차 비응함에서 유람선을 타고 선유도선착장에 내려 선 유도해수욕장, 만주봉 및 선유담경을 감상할 수 있는 45m의 전망타워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질라인을 체험하는 고군산군도 여행을 진행했다.

2일차는 근대시대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근대역사박물관, 신홍동 일민식가옥, 동국사 등을 아우르는 군산시 대표관광지인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최근 영화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암동 철길마을을 둘러보았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2017 전라북도 방문의 해와 발맞추어 군산시 대표관광지인 군산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 섬 여행을 테마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코스(군산, 전주, 부안, 고창)도 추가로 개발하여 관광광역화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주 주말 진행하게 될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상품은 오전 9시30분 시외버스터미널과 10시 군산역에서 출발하고 탑승료는 개인 10,000원, 단체(20인 이상) 9,000원(단, 식비·숙박료·체류료 본인부담)의 가격으로 운행되며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tour)와 어플리케이션(군산 시티투어), 전화(취동양해의관광, 063-838-1199)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10인 이상 예약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하림, 정읍여중 현장학습 비용 지원

가정형편 어려운 10명 체험학습비용·용돈 130만원 전달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읍여중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일부 지원했다.

하림은 최근 정읍여중 임택만 교장으로부터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시행되는 2학년 154명의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에 10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참가가 어렵다며 하림 정읍공장에 지원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가정지체 학생들의 테마식현장 체험학습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중 10명은 그 나머지 50%의 경비 부담조차 어려움이 있다

는 것.

이에 따라 이재선 정읍공장은 본사에 이 같은 사정을 보고했고 하림 윤리경영사무국은 체험학습비용 10만원과 체험기간에 필요한 용돈 1인당 3만원을 포함, 130만원을 임 교장에게 전달했다.

하림 윤리경영사무국 유영삼 사무국장은 "체험학습비용 전액을 지원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기로 해 아쉽지만 여행에 필요한 경비 3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하림은 직원들이 급여 끝전나누기와 나눔계좌 등을 통해 사랑의 장학금 등 지역사회 인재양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 링크사업단 진로직업체험 업무협약

익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의미있는 진로직업체험을 제공하고자 26일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밀착형 진로직업 체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에 지역내 여러 기관과 진로체험 및 교육기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원광대링크사업단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에 적극 지원해 왔으며 3D프린팅 체험, 레고마인드 스톰, 드론 학습과 시연, 로봇카 제작 등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협약 기관은 질 높은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교육장 및 전문적인 체험강사 등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기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6월말 완공 예정

군산시자원봉사센터가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며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문화동에 연면적 1천303.9㎡의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간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1층에는 자원봉사등록,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실, 봉사활동을 위한 조리실, 김장공간, 학생복 재활용매장, 봉

사단체 활동방이 설치된다. 2층에는 자원봉사자 교육과 행사를 위한 정보화교육장, 교육실, 강당 등이 마련되어 복지, 교육, 문화의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 로비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외 운동기구, 넓은 주차공간 설치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군산=장현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